

9지역 회장단 단체



9지역 클럽별 '따로 또 같이' 활력을

서울 성동, 도봉, 한남, 새문안, 새강북, 북부, 노원, 위드, 새한빛



9지역대표 박광호(서울새문안RC)

대기업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이후 로타리를 접하다 보니 비교적 늦은 나이에 로타리클럽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로타리 경험 및 로타리 지식도 많이 부족하여 클럽회장 역할 하기도 아직 부족하다 싶은데 지역대표라는 중책을 동시에 맡게 되어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다행히 새문안 로타리클럽 회우들과 9지역 클럽 회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9지역 소속 클럽들은 지구 방침을 충실하게 잘 시행하며 독자적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 클럽들도 있으나 비교적 회원수가 적은 클럽들이 많고, 회원수가 자꾸 줄어들어 운영이 어려운 상태인 클럽도 있으며, 신생클럽도 있습니다. 각 클럽별 전통과 특성 등을 잘 유지하며 '따로 따로'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하겠으나 클럽간 우수한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어려운 클럽을 서로 도와주는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도 각 클럽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지역은 지역 회장단 모임을 정례화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교류를 활성화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클럽끼리는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역 공동 사회봉사 활동으로 중증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의 작업을 도와주는 봉사를 부부동반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클럽들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됨으로써 지구 운영 방침인 'Family Together' 가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원 증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은 이번 회기동안 9지역 소속 클럽의 회장, 회우님들의 더욱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강북 로타리클럽

만남은 반갑게! 봉사는 즐겁게!!



새강북RC 회장 이진호

새 강북 로타리클럽이 1995년 창립이래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2016-17년도를 되돌아보면 전임회장님들의 헌신과 솔선수범, 젊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빠른 시간안에 제 모습을 찾아주었고 2017-18년도 두 번째 회장직을 맡으며 그 전통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새강북로타리클럽은 현재 창립멤버 15명 중에서 다섯 분의 창립회원들이 계시는데 새강북로타리클럽 100년을 향해 늘 솔선수범하고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입회 10년차 이상인 회원님들은 중간가교와 울타리 역할을 맡아 하시면서 신입회원과 젊은 회원들이 로타리클럽에 잘 정착하고 클럽의 리더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세대의 하모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클럽 봉사활동으로는 매월 정기봉사활동으로 아동보육의 집인 예담의 집과 중증장애인의 집인 행복한 사람들의 집에 10여년 이상 꾸준히 매월 회원님들이 방문하여 근황을 듣고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세대 사업으로는 혜화여고 인터랙트클럽과 덕성여대 로

타랙트클럽을 후원하고 있으며 신세대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님들의 생일성금으로 꾸려지는 혜화여고 기부장학금은 그 폭을 확대해 기존의 인터랙트클럽 회원들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특성상 더 많은 학생들에게 조그만 도움과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 매년,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학교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매년 창립 기념일 주회에서는 회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로타리 재단기부금에도 PHS 회원이 5명이고, Major Donor 1 회원도 5명으로 PHF 166구좌, BNF1구좌, RFSM, EREY 등 총 금액 \$182,105을 기부하고 있고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봉사의 인수도 69명으로 총금액 69,300,000원을 봉사하였고 꾸준히 매년 봉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반갑고 좋은 사람들과 봉사하면 즐거운 클럽이 되고 회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알찬 클럽으로 성장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신문안 로타리클럽

창립 24년, 다양한 계층의 리더들로 구성, 로타리 정신에 충실한 클럽

서울신문안로타리클럽(회장 박광호)은 1993년 6월 10일에 한양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약 40명의 회원으로 창립되었으며, 현재 3650 지구 9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신문안로타리클럽은 서울창덕로타리클럽과 서울서교로타리클럽, 서울새한빛로타리클럽, 덕성여중인터랙트클럽 등을 스폰서하여 창립하는데 기여했으며, 5명의 지구 리더(지역대표, 총재특별대표 등)와 直前 能設박호군 지구총재(2016-17)를 배출하였습니다.

1993년에 창립한 이래로 로타리 정신에 충실하게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힐튼호텔에서 주회를 갖고 있으며, 매주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있고, 회원 간의 친교를 위한 문화답사여행을 부부동반으로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취미활동으로 사진동호회, 골프동호회, 등산동호회를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더욱 뜻 깊은 주회를 갖기 위하여 금년부터 매월 네 번째 주는 부부동반 문화예술주회, 다섯 번째 주에는 광진구 구의동(위커킬) 소재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서 부부동반으로 장애우 근로작업을 도와주는 부부동반 봉사주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과 무

의탁 청소년들의 집단인 그리스도의 집 소년들의 학비 지원,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휠체어와 우비 보내기 운동, 정립전자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를 후원을 했으며 대학생 1명에게 년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는 9지역 8개 클럽 공동으로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소속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커피차량에 커피머신 등 장비 지원을 하는 9지역 공동 사회봉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활동은 일본의 고리야마RC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점촌중앙RC와 자매결연을 맺고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국제봉사활동으로는 2012-13년도에 평화의료재단과 함께 라오스에 입원실을 건립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9지역 봉사활동의 스폰서클럽으로 지원했으며, 2013-14년도에도 역시 평화의료재단과 함께 온두라스에 병원을 지어 주는 사업에 스폰서클럽으로 참여했습니다.

회원구성은 지난 20여년간 창립 회원들의 사망과 탈회로 결원이 많이 생겼으나, 직업과 세대 간의 고른 분포를 나타내는 70대의 창립회원부터 40대 후반의 회원까지 고르고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신문안RC 회장 박광호

서울새한빛 로타리클럽 신생클럽이 제안하는 회원증강 방안



서울새한빛RC 회장 남궁근

2017년 3월 16일 서울새한빛 로타리클럽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서 홀룡하신 로타리안 선배님의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감히 회원증강에 대하여 말씀드리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따라서 창립 후 활동사항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역사가 증명하듯 인구가 계속 줄면 결국에 나라가 멸망하여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줬듯이 90년 역사의 3650지구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약 3,000명의 회원이 현재 2,000여명으로 1/3회원이 줄었습니다.

1. 집안 단속이 우선

임원들께서는 주회 전 회원님들에게 주회의 안부전화와 주회 참석유도 및 회비납부 권고로 회원 마음을 움직여 기존 회원을 유지케 합니다.

① 회원들의 경조사, 생일, 개업, 공연, 전시, 수상 등을 꼭 챙겨 축하와 참석, 가족같이 따뜻한 우정을 나눈다.

② 문화예술, 취미활동 활성화로 매월 개봉관 영화감상으로 우의를 다진다.

③ 계절따라 문화탐방여행으로 친목을 돈독히 한다.

2. 구슬이 많아도 꿰어야

이순동 총재님 취임축사의 일성이 회원증강 이었습니다.

"Famaily Together" 가족, 친지, 직장동료, 동창회 등등 회원증강에 대한 범위와 방법론을 총재공식방문마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① 총재님께서 서울새한빛로타리클럽에 회원증강 25% 이상 또는 1개 클럽 창립을 특별히 강조하셨고 ② 로타리 발전을 위해 PHF 2구좌(\$2,000) ③ 봉사의인 4구좌를 권고하셔서, PHF 2구좌와 봉사의인 4구좌를 현금기부 하였습니다. ④ 회원증강 100%를 위한 1개 클럽을 하반기에 창설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룩하려고 다짐합니다.

3. 회원증강은 이렇게

- 감 떨어질때까지 누워서 기다리면 안됩니다. 나무에 올라



가서 가야합니다.

- 회원증강대상이 정해지면 우선 만나서 차 한잔을 또는 소주한잔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다음에 폴 해리스 창시자의 로타리 봉사정신으로 감동케 합니다.

그래도 동의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동의할 때까지 밥 사거나 술 사면 됩니다.

군대말로 "Nothing impossible"이란 구호가 생각납니다.

"안되면 되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